십자가 믿음으로 얻는 '태양구원'

(시편 27:1~14)

1.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5.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6.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믿음으로 얻는 '태양구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십자가 믿음으로 얻는 '태양구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은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구원에 대해서는 아시는지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라는 말에 주목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이는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빛은 사물을 분별하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오페라 가수가 무대 위에서 독창을 할 때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집니다. 한 점을 향해 조명이 비춰질 때에 무대 위의 모든 부분은 어둠 속에 묻혀 버립니다. 이럴 때에 오페라 가수를 보면서 '나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라는 말은 ‘오 솔레미오’라는 노래에서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태양이십니다.’라는 말입니다.
‘태양’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의미로는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항성을 뜻하고, 두 번째는 매우 소중하거나 희망을 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에서의 태양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조명을 받는 유일한 존재는 동시에 다른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나의 태양이요 나의 빛입니다.
아름다운 아가씨를 마음의 태양으로 여기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주변의 다른 여자들은 이성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아가씨만을 태양으로 여겨서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빛의 성질 중에서 다른 사물들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듯이, 그 아가씨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좋은 것을 보면 함께 하고 싶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함께 먹고 싶어 합니다. 여행사 앞을 지나가면 함께 여행가고 싶고, 상사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때에도 그녀와 만날 생각을 하면 너끈히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태양입니다. 돈 이외는 뵈는 것이 없고 돈이라는 빛 아래에서만 세상을 보게 됩니다. 돈이 태양이면 어떤 사람과의 만남도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는 말씀 뒤에 ‘나의 구원이시니’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거룩 소망 믿음 등의 기본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에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주는 재미나 효과도 느끼질 못합니다. ‘나의 구원이시니’라고 하는데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마음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마음 안에 ‘나’라는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가 인격입니다. 많은 객관적 사실들 중에 특정한 사실에 마음이 붙을 때에 그것은 주관적인 현실이 됩니다. 나는 인격으로서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격체인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노총각과 결혼한 처녀가 그 사람을 구원해줬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곧 구원이 마음의 채워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상태는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곧 기쁨에서 추방당했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기쁨을 잃은 인간에게 구원은 곧 기쁨을 얻는 것이고 기뻐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에덴 밖은 기쁨과 만족이 없고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와 시기와 갈등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에덴 밖에서도 하나님 대신에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죄는 곧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마음을 채워서 기쁘고 만족하려는 것입니다.

구원은 에덴 밖에 있는 존재들의 에덴 안으로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어떤 것으로 마음을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태양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것이 최고이며 그것 외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마음의 공백상태를 채우려는 흡입력이 작용합니다. 구원은 달리 말하면 태양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나에게 태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마음을 채우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에게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마음을 채운 태양의 속성이 일시적이고 유한하다면 구원도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이 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참 구원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태양으로 모시고 채웠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재벌이 돈으로 마음을 채웠지만 돈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으면 육체와 함께 없어져버립니다. 돈으로 구원을 받은 줄 알았지만 거짓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곧 마음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마치 나인성 과부가 외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채우고 싶은데 채울 것이 없습니다. 아들이라는 태양으로 마음을 채우고 위로를 받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자 더 이상 마음을 채울 것을 찾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채워보니 육체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울 것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태양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으로 채우면서 사는 상태가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속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나의 인격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움 받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곧 태양으로 마음을 채운 상태입니다. 그 태양이 된 대상이 일시적이라면 멸망을 속성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태양이 된다면 그 구원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번역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보자면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강함이시다'라고 해야 뜻이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체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서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고 망하게 되었다는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앞으로 찾아올 대적들도 그렇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육체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함을 피난처, 요새, 강한 성곽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육체적 목숨에 대한 도피처로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의 강함이시니'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이 질기게 고난을 뚫고 살아남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목숨이 길게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강함의 정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얼마큼 살라고 정해놓으신 이상 그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대적이 쳐들어 왔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5년 더 남았다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해놓으신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혹시 병에 걸려서 죽을지라도 그것은 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죽기 전에 병에 걸리게 하심으로 좀 더 깨끗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선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하는 때가 이르러서 데려가시는 방법을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 교통사고에 얽힌 여러 가지의 계획을 추진해 나가시기 위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내 육체의 목숨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강함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생명은 앞서 나온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살아야 될 이유를 제공하는 존재가 곧 나의 생명이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생명이면 여호와 때문에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나인성 과부가 삶이 피곤할지라도 아들이 곤히 자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흐뭇해지면서 살아야 될 이유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여금 살 의욕을 생기게 하고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그것이 없다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축구 선수들 중에 공격수는 골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드리블을 잘해도 골을 넣을 수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맨손으로 기업을 일군 사장님에게는 기업이 생명입니다. 나인성 과부에게는 외아들이 생명이었습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 여긴다면 돈이 생명입니다. 앞서 나온 빛과 태양이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강함은 무엇일까요?
천신만고 끝에 임신한 엄마에게 아기는 곧 생명입니다. 이 아기가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아기는 엄마의 마음에서 태양이 되어서 살아갈 이유를 제공해주지만 아기가 강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쁜 아가씨를 마음의 태양이자 생명으로 여기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아가씨 때문에 살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지만 그 아가씨가 강한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빛과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돈입니다. 그럴 때에 돈은 약간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강함이시라고 했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을 2절과 3절에서 노래합니다. 대적들이 쳐들어 왔지만 다윗의 눈에는 생명이고 태양이고 구원이신 하나님만 보일 뿐입니다. 대적들은 무대에 있지만 어둠 속에 묻혀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김정은의 핵폭탄이 대적이고 중국의 사드보복이 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보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찾는 사장님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만을 태양으

로 여길 때에 기쁨이 없던 땅에서 기쁨이 있는 에덴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일어나면 그분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위기에 대해 강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옛날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대적들이 하나님의 강함 앞에서 오합지졸에 불과할 것임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윗은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라고 노래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말은 곧 하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어려서부터 지속되어온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든지 다윗의 마음의 기본 바탕은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금 최고로 기쁜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골리앗을 마주할 때에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태양이셨습니다. 그 때에 마음에 계셨던 하나님이 강하셔서 골리앗을 무찌르셨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마음의 태양으로 보았습니다. 쫓겨 다니지만 사울이 마음 깊이 들어오지 않으니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전 국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어서 고대광실 산해진미를 누리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쥐었지만 다윗의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더니 주변의 모든 국가를 향해 생명 되신 하나님의 강함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재미있는 점은 7절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뀐다는 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합니다. 이어서 8절에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갑자기 비탄조의 분위기로 바뀝니다. 앞서 6절까지와 분위기가 너무 다르기에 학자들은 서로 다른 두 시를 붙였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하나님이 태양이 되셔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찬양하였습니다. 심지어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진치고 있는데도 그들이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오 나의 태양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구원이 일어나고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 살아야 될 이유가 강함과 함께 나타남이 거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7절부터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다윗의 마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들로 인해 마음의 먹구름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자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이 핵실험을 했다고 하면 인간으로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윗은 모든 행위를 중단한 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상번제였습니다. 대적들이 진치고 있어도 예루살렘 성막의 번제단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 상번제를 드립니다. 대적들로 인해 먹구름으로 덮인 마음의 상태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 할 때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상번제를 통하여 삶에서 생긴 문제의 먹구름이 덮인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을 태양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양이 죽는 순간을 내가 죽는 것으로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만 태양처럼 보이는 상태가 되기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번제는 다윗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찾았듯이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 나의 태양'이라는 말을 한 상태에서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그분들의 이름과 얼굴을 죽을 때까지 모를지라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세상 문제로 인해서 먹구름이 덮였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먹구름이 걷히고 하나님을 태양으로 보는 상태가 되어서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우리는 태양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는 구름을 걷어내고 태양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걸고 마음의 태양이시고 유일하게 구원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둠 속에 묻히게 하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둠 속에 묻힌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